

전통 소재로 제작한 상차림 '눈에 띄네'

한국전통문화전당
서울리빙디자인페어서
'눈에 띄는 제품상' 수상

실용성까지 담아내
관람객들 시선 사로잡아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국내 최리빙 박람회인 '2017 서울리빙 디자인페어'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창조명품 육성사업 결과물을 전시, '눈에 띄는 제품상'을 수상했다.

전당은 '만찬의 상차림'을 주제로 지역 장인이 만든 전통문화자원에 디자이너의 현대적 감각을 접목해 만든 창조명품상을 전시해 이번 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전통의 소재를 현대 생활에서 조화롭게 활용하도록 전통과 디자인뿐 아니라 실용성까지 담아낸 작품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평을 받았다.

이번 전시의 참여 작가는 남원의 목기공예 이근두 명인, 전주의 도예 공예 진정옥 작가, 익산 목가구 권원덕 작가 등 8명이다. 최경란 국민대 교수(2015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 박현주 포드폴리스 대표(통영12공방 아트디렉터), 박형원 어반웍스 대표(SM신사옥 공간디자이너) 등 6명은 디자이너로 참여했다. 전시에서 서울 마포의 두석장 양현승 명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오태수)은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 국내 최리빙 박람회인 '2017 서울리빙디자인페어'에서 '눈에 띄는 제품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리빙디자인페어 전시회장.

인과 강산재 디자이너는 만찬의 상차림에 쓰일 소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두석은 대부분 가구의 부자재로 장식성을 더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에는 전통 소반의 단아한 비례감과 품격은 유지하되 재료와 형태의 변형을 시도했다.

또 하단에는 대나무·백자 같은 독특한 소재로 받침을 만들고 상단은 옷철한 목기에 기하학무늬의 두석 장식을 입혀 주목을 끌었다.

이 외에도 완주의 도예가 진정옥 작가와 박형원 디자이너가 협업해 분청사기의 형 태적 재해석을 통한 주방용품, 담양의 죽공예 명인 황미경 명인과 정소이 디자이너의 대나무 살의 그림자가 투영되는 달을 형상화한 행잉 조명, DIY 촛대 등 반제품 형태의 생활 공예품을 선보여 관심을 모았다.

'국립발레단 호두까기인형'

국공립예술 우수 프로그램 선정

김제시 문화예술회관은 2017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서 국공립예술 우수 공연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국비 5,400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선정된 공연 프로그램은 국립예술단체인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발레 호두까기인형"으로 포르트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음악, 유리 그로가로비치의 안무버전으로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국립발레단이 크리스마스 배경 분위기에 맞게 금년 11월중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또한 본 공연은 웅장하고 인상적인 무대는 물론이며 정교하고 아름다운 동작과 음악으로 어우러져 어린이들뿐 아니라 성인 관객에게도 매력적인 작품으로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언문 문화홍보촉제실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문화수준 향상에 도모와 지방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의 장이 마련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김제=박노태 기자

올해 순창지역 문화예술 '훈풍'

군, 공모사업 11개 선정

순창군에 올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면서 군민 문화지수가 확 높아질 전망이다.

군은 13일 현재 문화예술 관련 각종 공모사업에 11개 사업이 선정 확정됐다고 밝혔다.

관련예산은 4억여원이다. 시설공사가 아닌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으로 4억여원은 큰 가치가 있다. 지난해보다 벌써 5개 사업이 늘어났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도 있어 최종 선정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군 측은 기대하고 있다.

올해 공모에 선정된 주요 사업들은 ▲공연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사업 ▲문예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교육사업 ▲다문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향교서원 활용사업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 ▲1시군1교 농악전승학교 운영사업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등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은 향토회



관을 활용해 대형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되는 사업이다. 순창군에는 오케스트라를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 지난해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7회 정도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공연이 진행될 계획이다.

문예회관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사냥송 및 시창작교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총 36회가 진행되며 문화에 대해 배우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가 흐르는 예술여행 사업도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오페라, 가곡, 낭독극을 주민들이 친근감 있게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 영상, 미술, 해설을 가미해 구성하며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 진행된다.

이외에도 다문화 가족에게 한국요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요리교실 등 올해 순창에서는 향토관, 도서관, 문화원, 향교 등 문화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펼쳐지게 된다.

전주국제영화제, 지프 서포터즈 모집

(재)전주국제영화제작위원회(집행위원장 이충직)가 '지프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더하기'의 회원을 모집한다. 지프 서포터즈와 서포터즈 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의 가입비를 납입하면 전주국제영화제만의 특별한 회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멤버십 제도이다.



지프 서포터즈의 경우 2만원 이상의 회원 가입비를 결제하면 전주국제영화제 티켓교환권 3매가 증정되고 상영작 예매 시 티켓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기념품을 구매할 때 10% 할인이 적용되며, 영화제 정보지 제공·회원 전용 쉼터 사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주국제영화제의 특별한 후원제도인 서포터즈 더하기는 5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결제하면 지프 서포터즈 회원이 제공받는 혜택에 더해 게스트 패키지 등 영화제 소정의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메인 카탈로그에 후원자로 이름이 기재되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도 가능하다.

회원가입은 오는 28일 오후 5시까지며 전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www.jiff.or.kr)에서 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 위한 취업지원사업 확대

전주YWCA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임경진) 산하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한 취업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연계를 위한 동행면접, 인턴십·취업자와 채용기업을 위한 사업들을 제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먼저 전주새일센터는 구인·구직 발굴 및 취업연계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센터는 구인 1,800건 및 구직여성 3,000명을 발굴하기 위해 여성다중이용시설 주민자치센터 및 대형마트 등 이동취업상담을 주 2~3회 실시할 예정이다. 구직여성만남의 날 개최, 동행면접, 이력서컨설팅으로 연간 1,440명의 인력 알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4월부터는 구인기업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국비 직업훈련을 실시한다.

센터는 금융보험총무사원·세무회계사무원·결혼이민여성 식품생산안전관리인력양성·호텔객실관리사·탄소소재제조생산 인력양성 등 기업 맞춤형 취업을 지원한다.

또 센터는 취업여성 및 채용기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고용유지율을 향상을 도모한다.

센터를 통해 취업한 여성을 위해 1년 동안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업 후 1개월 연속 촉학을 위한 이벤트 및 고충상담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재취업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재취업률에도 힘을 기울인다.

이외에도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입주 및 결혼이민여성 집단상담 운영을 위한 전담상담원 충원으로 취업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계자는 "구인·구직알선을 위한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과 사후 관리사업은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고용유지와 재취업률 향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해은 기자

남원시 춘향제

여행을 판타지를 만나다

- 춘향제 (5월)
- 철쭉제 (4~5월)
- 지리산둘레길 (3~5월)
- 요천번 박곡 (4월)
- 요천자전거리 (5월)

남원시

춘향남원 사랑의 명맥